

## 북·리 경제협력 강화 배경과 향후 전망

**최장호** 국제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김준영** 국제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junyoung@kiep.go.kr, Tel: 044-414-1287)

## 차 례 ●●●

1. 북·러 관계 추이
2. 북·러 경제협력 현황
3. 북·러 경제협력 강화 배경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 주요 내용 ●●●

- ▶ 김정은 집권 이후 북·러 간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양국 모두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립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의 대러경협 강화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위한 자본·기술 도입, 외교적 고립 탈피, 대내외적 통치정당성 확보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대북경협 강화 동기는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제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돌파, 극동지역 개발을 통한 러시아의 균형발전 도모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 현재 북·러 간 주요 경제협력 사업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러시아의 북한 철도현대화(포베다) 프로젝트, 북한의 연해주 농업투자, 러시아의 북한 광물 개발 등을 중심으로 추진
- ▶ 향후 북·러 관계 개선은 정치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은 미진할 것으로 전망됨. 북·러 경협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한·중·일 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며 한·러 관계 개선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임.
- ▶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러 간 3각 협력을 통하여 북한 북동지역을 개성공단 형태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거나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하여 동북2성과 한반도철도를 연결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북한은 중국 동북2성과 한국을 위시한 동북아를 잇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며, 한국 역시 유럽·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육상 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1. 북·러 관계 추이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2012. 4) 이후, 북·러 간 정치·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

- 최근의 북·러 관계 개선은 빈번한 고위급 교류 등 정치분야에서 출발하여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양상임.
  -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러시아 승전기념일과 같은 날인 해방기념일 70돌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시하였음.
  - 푸틴 대통령도 2014년 11월 18일 김정은의 특사로 파견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면담하고, 2015년 5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한 지도자를 동시에 초청하였음.

표 1. 2014년 북·러 고위급 교류 동향

시기	주요 동향
2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소치올림픽 참석 겸 러시아 방문
3월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방북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방북
4월	러시아 에너지·안전센터 대표단 및 사할린 주정부 관계자 방북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 김영남 위원장 접견
7월	북·러 공동선언 14주년 기념, 김정은 북·러 관계 강화 의지 피력
8월	푸틴 대통령 광복 69주년 기념 축전 화답으로 북·러 관계 강화 의지 표명
10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 방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및 극동개발부 고위인사 등 면담
	최룡해 노동당 비서 일행 방러, 푸틴 대통령 접견 후 김정은 친서 전달 및 고위급 회담
12월	푸틴 대통령, 김정은 초청(2015년 5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한 양측 지도자 동시 초청)

자료: 언론보도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북한과 러시아는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대외적으로는 외교 갈등을 겪으면서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양국간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과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UN의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대외적 고립도 또한 가중되고 있음.
  - 2006년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더하여 한국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5·24 조치를 시행하여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제한, 중국도 2013년 1월부터 핵개발 중지와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원유수출 중단을 포함한 경제제재를 시행<sup>1)</sup>

---

1) EU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강유덕·이현진(2014),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14-47호를 참조.

- 러시아는 2014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사태 관계자와 관련 기관의 해외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세계적인 저유가 기조로 정치·경제적 난관에 봉착
  - o 러시아는 상품수출의 68.4%가 화석연료(2013년)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가 크게 악화
    - ※ 2013년 상품수출(5,272억 달러)은 석유 33%(1,736억 달러) 및 석유관련제품 21%(1,094억 달러), 천연가스 13%(672억 달러), 연탄 2%(106억 달러)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I 평균가격이 2013년 배럴당 98달러에서 2015년 1월 현재 5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상품수지 악화
- 이에 양국은 북한 북동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 러시아의 북한 철도현대화(포베다) 프로젝트, 북한의 연해주 농업투자, 러시아의 북한광물 개발 등을 추진

■ 본고는 북·러 경제협력 강화 배경을 분석한 뒤,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북·러 경제협력 현황

### 가. 북·러 무역 현황

- 2013년 북·러 무역규모는 1억 달러로, 러시아는 북한의 2위 무역상대국이나 그 비중은 1.4%에 불과(표 2)
- 2013년 북한의 대러 수출은 700만 달러, 수입은 96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북한의 대러 무역은 2013년 중 800만 달러 적자를 시현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음.

표 2. 2013년 북한의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 합계		교역수지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비중	
1	중국	2,914.0	17.3	3,633	3.0	6,547.0	89.1	-719.0
2	러시아	7.7	-29.9	96.5	48.6	104.2	1.4	-88.8
3	인도	34.9	24,569.0	63.1	-16.7	98.0	1.3	-28.2
4	태국	10.6	-51.8	85.0	112.1	95.6	1.3	-74.4
5	싱가포르	1.5	108.1	59.3	23.6	60.8	0.8	-57.8

자료: 러시아연방관세청, WTA, 재인용: KOTRA, 「2013 북한 대외무역 동향」.

- 2013년 북한의 대러 수출은 전년대비 30%(771만 달러) 감소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의류, 약기 등이고, 대러 수입은 광물성연료와 건축자재 등에 집중
  - 주요 수출품은 의류 및 부속품 50%(385만 달러), 약기 및 부분품 17%(128만 달러) 등으로서, 이들 품목은 노동집약적인 특징이 있음.

-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연료 및 광물유 38%(3,689만 달러), 보일러와 기계류 24%(2,288만 달러) 등으로, 화력발전용 유연탄과 북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나진·하산 철도건설에 따른 건설자재 수입이 각각 늘고 있음.<sup>2)3)</sup>

표 3. 2013년 북한의 대러시아 상위 5위 수출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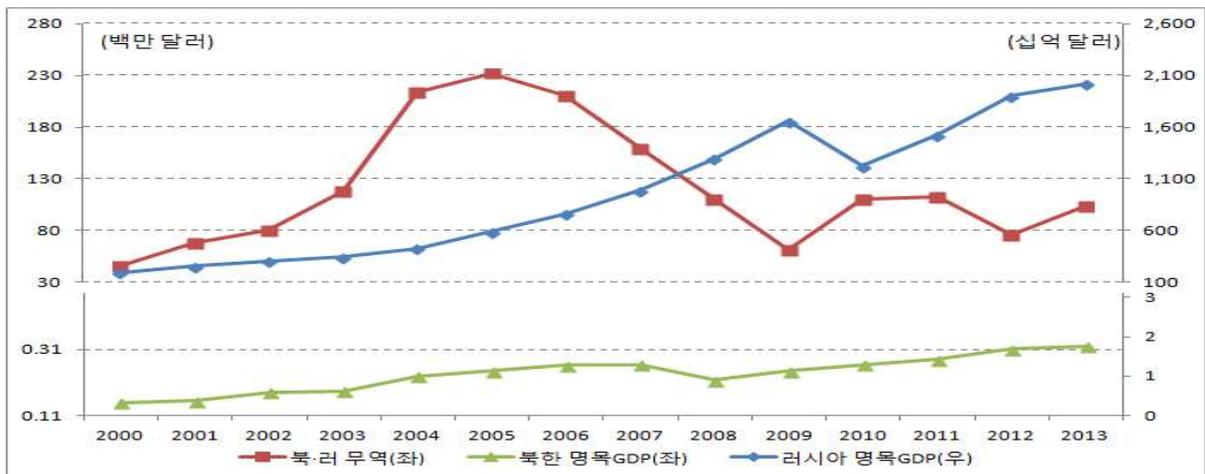
수출 품목명	2012	2013			수입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의류 및 부속품 (메리야스, 뜨개질편물 외)	2,730	3,850	41	49.92	광물성연료, 광물유	23,278	36,894	58.5	38.23
악기 및 부분품	787	1,281	62.8	16.61	보일러와 기계류	1,119	22,875	1,944	23.7
원자료, 보일러와 기계류	836	510	-39	6.61	차량 및 부품	74	9,605	12,879	9.95
전자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	833	299	-64.1	3.88	제분공업 생산품	6,194	3,754	-39.4	3.89
기타 화학제품	827	294	-64.4	3.81	펄프, 폐지	96	3,745	3,801	3.88

자료: 러시아연방관세청, WTA, 재인용: KOTRA, 「2013 북한 대외무역 동향」.

■ 북·러 무역은 변동성이 심하고 경제 외적요인에 크게 좌우

- 국가간 무역은 경제규모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북한경제는 2000년부터 미미하나마 회복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도 2000~09년 중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북·러 무역은 2000~05년 중 증가하다가, 2005년 2.3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이후 회복하는 추세

그림 1. 북·러 무역과 북한 명목GDP, 러시아 명목GDP



주: 북한 명목GDP는 한국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변환.

자료: 북·러 무역은 KOTRA (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러시아 명목GDP는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orld Bank; 북한 명목GDP는 통계청(2014), 201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인용.

2) 정은이(2014), 「북한 부동산 투자 현황에 관한 분석」, 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 김정은 제1비서는 2015년 신년사를 통해 2014년 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등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실현해나가는 북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밝힘.

## 나. 북·러 경제협력 현황

■ 주요 경제협력 사업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북한의 러시아 연해주 농업투자, 포베다 프로젝트, 북한 광물개발 등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음.

표 4. 2014년 북·러 주요 경제협력 동향

시기	주요 동향
4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노두철 북한 내각 부총리와 경제·철도·운수 분야 협력합의서 체결. 현재 1억 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1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러시아는 대북 식량지원에 동의함.
5월	러시아는 북한 채무 90%(90억 달러) 탕감, 나머지 10%(10.9억 달러)는 20년에 걸쳐 상환하고 이를 북한에 재투자
9월	러시아 측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완료
10월	포베다 프로젝트 착공(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 현대화). 루블화 대금 결제를 위해 북·러 은행간 인프라 구축. 북·러 무비자 협정 논의.
11월	최룡해 특사 방러를 계기로 경험 범위 확대 나진-하산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따라 시범수송 시행

자료: 언론보도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 나진-하산 프로젝트

- 동절기에 항구가 얼어붙어 쇄빙선 사용이 불가피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대신 유희시설인 북한 나진항을 활용하여 러시아산 광물자원을 값싸게 수입하려는 구상임.
  - 2014년 12월 이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4.1만 톤을 중국 선박을 이용하여 나진항에서 포항(포스코 원료부두)으로 수송함으로써 기존항로보다 운송비를 10~15% 절감<sup>4)</sup>
    - ※ 국내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발전)는 러시아산 유연탄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5년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러시아와 본 계약을 추진할 예정임.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단순히 북한 개발 또는 북한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철도(TSR)와 한국철도(TKR)를 연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됨(그림 2).
  - 2014년 9월 러시아는 나진-하산 철도(54km)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TSR-TKR 연결을 위해 1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
- 동북아는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 러시아의 대한국 천연가스 공급계획 등이 추진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외에도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을 병행하여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을 추구

4) 「발전 5개사,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검토(종합)」, 『연합뉴스』(2014. 12. 7).

그림 2. 동북아시아 철도 연결도



자료: Google Earth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상대적인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수출가공산업 유치를 목표로 훈춘 국제 합작시범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훈춘과 해상항구 연결, 9년 동안 사용되지 않던 훈춘-자루비노 철도 재개통 (2013년 9월) 등을 통하여 무역원활화를 추구
  - ※ 중국은 나진항과 자루비노항을 병행 이용하면서 두 지역간 경쟁을 통해 수송비, 항구 이용료 등을 낮추어 해상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는 나진항 제3부두 사용권 확보에 이어 블라디보스토크항 남서쪽에 위치하여 겨울에도 얼지 않는 자루비노항을 2018년까지 개발하여 연간 6,000만~1억 톤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임.<sup>5)</sup>
- 북한은 '청진경제개발구'를 동북2성 및 러시아의 화물을 아시아 북미로 중계수송하는 물류거점으로 개발함으로써 대외경협지대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은 동북 2성의 물류 확보를 위해 경쟁할 가능성이 있음.

#### ■ 북한의 러시아 연해주 농업투자

- 북한은 농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고 유희지가 많은 연해주 투자를 통해 농산물의 일부를 현지 판매하고 나머지를 북한에 반입하여 식량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해외근로자의 임금 송금으로 외화획득을 추구
  - ※ 북한은 2014년 러시아 아무르주 농지 1,000ha를 임대하여 콩, 감자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고 명희 북한 농업부 부부장은 하바롭스크주를 방문하여 농지 1만ha 이상을 추가 임대해 북한이 노동력과 기자재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농지를 제공하여 채소, 목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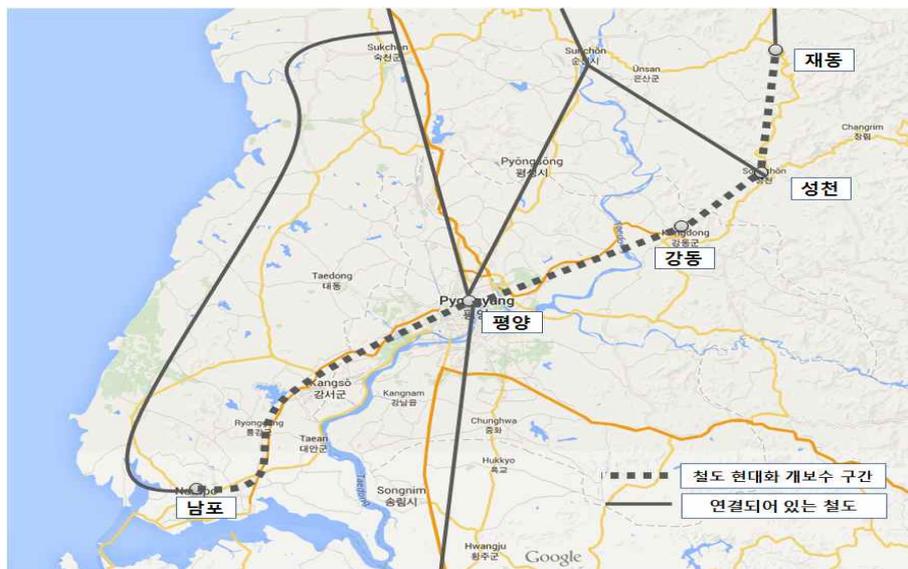
5) 자루비노항의 연간 화물 처리량 중 60%가 중국 동북에서 남방으로 수송되는 중계무역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자루비노항은 2015.2월 착공할 예정이며 총 투자비 30~35억 달러 중 러시아 최대 항만운영기업인 수마그룹이 10~12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开发远东:俄大扎鲁比诺港建设将吸引中资参加』, 『中俄经贸网』(2014. 12. 19).

-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식량기지 구축을 목표로 다수 기업이 연해주 농업개발에 참여해왔으나, 농업 인프라와 생산성 미흡, 대규모 소비시장 부재 등으로 대부분 실패하였음. 아그로상생, 서울사료 등 소수 기업만 남아 있으며, 이들 기업의 실질 경작률도 임대지의 30% 내외에 불과

■ 포베다 프로젝트와 북한 광물개발

- 2014년 10월 북한과 러시아는 재동-남포 철도를 현대화하는 포베다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와 북한정부 합작으로 총연장 3,500km의 철도와 터널, 교량, 역 등을 정비하는 데 2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그림 3).
- 러시아는 포베다 프로젝트의 반대급부로 북한의 석탄과 희토류를 포함한 비철금속 개발권을 획득하여 광물을 선판매한 뒤 이를 북한 철도현대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형태임.
- ※ 러시아 고위급 담당자는 현재 북한과 함께 개발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힘.<sup>7)</sup>

그림 3. 러시아의 북한 철도현대화 개보수 구간



자료: Google Earth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俄媒: 朝鲜希望在俄远东地区租用1万公顷农用地』, 『网易新闻』(2014. 11. 14).

7)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한국 방문 중(2014.11.27~30) 이타르타스 통신 서울특파원과과의 인터뷰에서 언급.

### 3. 북·러 경제협력 강화 배경

#### 가. 북한의 대러관계 강화 배경

■ 북한은 북·러 경제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TSR과 TKR 연결, 북한을 통한 한국과의 천연가스 송유관 연결 등을 원하고 있어 대러 경험이 용이한 상황임.

-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 강화가 절실함을 인식하고<sup>8)</sup>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사례를 거울삼아 2014년 중 경제개발구를 19개로 확대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전략(outward-looking growth)을 추구
  - 러시아의 대북 FDI는 2012년까지 230만 달러로 미미하였으나, 2013년 1~9월 중 57백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sup>9)</sup> 현재까지는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 파급, 수익성을 갖춘 사업유치 미흡 등으로 경제개발구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

■ 북·러 무역 확대를 통해 북·중 무역에 치우친 대외거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무역다각화를 추진해왔으나, 실제로는 대중무역 비중이 89% (2013년)를 상회할 정도로 북·중 무역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북한의 대중 수출은 천연자원, 수산물 등에 집중되어 제조업 발전과 수출을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제조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러 무역 확대를 통해 제조업 발전을 기대해야 하는 실정
- 생필품 부족과 북·중 무역 증대로 장마당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등 북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북한당국이 통제 가능한 '우리식 시장화'를 위해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대신 러시아와의 협력을 불가피하게 확대하고 있음.
  - ※ 북한은 '6.28 조치', '5.30 노작' 등 자립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음.
-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육상교역로가 확보되었으며, 북한은 광물, 농수산물 등의 대러수출 확대와 인력 파견의 반대급부로 에너지, 군수물자 등 대러 전략품목 수입 확대가 가능

■ 한편 정치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외교적 고립 탈피와 대내외적 통치정당성 확보의 기회로 삼고자 함.

-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중국 일변도의 외교적 상황을 탈피해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대내외적 통치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8) 金哲(2014), 「朝鮮創建經濟開發區及新世紀產業革命與經濟強國建設」, 『東北亞論壇』, 第1期, pp. 56~59.

9) 현대경제연구원 (2014),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 러시아는 6자회담 참여국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하고 있으나, 최근 북핵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외교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음.<sup>10)</sup>

## 나. 러시아의 대북관계 강화 배경

■ 정치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제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돌파 등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등 아시아의 안보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을 표방하여 협력이 용이한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함.
- 2014년 5월 중국과 40년간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과 북한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의지를 꾸준히 피력
-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협력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것으로 판단됨.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북한 자원개발이나 산업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그 인계선 역할을 할 수 있음.

■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추구도 필요함

- 러시아 극동은 빈부격차가 크고 서부보다 낙후되어 사회경제적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극동개발을 도모하고 있음.
  - ※ '극동지역 경제사회개발 국가위원회', '2008~2013 극동-자바이칼 지역 경제사회개발 연방 특별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경제사회발전 국가전략 2025' 등 극동개발전략 구체화. 2025년까지 390조 원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촉진<sup>11)</sup>
- 극동은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지역이 접경하여 국제협력이 긴요한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 모두 동북아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 러시아는 나진-하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면서 남-북·러 3각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러시아는 동북아의 철도·운수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물류를 주도하는 한편, 극동지역을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국제 물류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또 동북아지역에 천연가스, 석유, 석탄과 전력을

10) 최근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인터뷰 참고. 「러시아 '북핵 개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간주 않아」, 『연합뉴스』(2014. 11. 22).

11) 제성훈·강부균(2013),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출하여 동아시아에서 에너지 강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함.

- 러시아 수출품의 약 70%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인 만큼, 러시아가 동북아 물류를 주도할 경우 이를 동북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질 것임.

##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 최근 북·러 관계는 정치분야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치관계에 크게 좌우되는 북·러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와 한·중·일 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 북·러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 김정일-푸틴 1기의 긴밀한 관계처럼 정치협력이 전제(표 5)되어야 하며, 현재 북·러 경협이 북한 북동과 러시아 극동에 집중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자협력으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음.

표 5. 북·러 관계 강화의 시기별 비교

시기	냉전 후기		탈냉전기			
	1984~86		2000~05		2014~현재	
지도자	북한	소련	북한	러시아	북한	러시아
	김일성	체르넨코	김정일	푸틴 1기	김정은	푸틴 3기
협력형태	군사협력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 협력 강화		정치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협력 확대 중	
특징	냉전시기의 군사안보 중심협력		냉전 이후 북·러 관계 복원		북부 동북아에 기반한 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자료: 최명해(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오름; 이정철 외(2013),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요인' 과 한국에의 시사점,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등 수정 인용.

-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반면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정치 이슈가 선도하는 북·러 관계에서 경협 진전을 근본적으로 제약
- 북·러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시장보다는 한국·중국 등 연계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가 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개발을 위한 대중 협력이 불가피하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시장잠식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중국 이외에 한국·일본과의 경협을 통하여 대중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긴급
  - 러시아의 북한철도 투자는 북한 대러부채의 10%(1억 9천 달러)를 20년에 걸쳐 상환하면 이를 북한에 투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불가능하며, 포베다 프로젝트도 북한 광물의 판매수익금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상존
  - 나진-하산 및 포베다 프로젝트는 향후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을 내다본 선연적 성격이 강하며, 대규모 시장을 보유한 일본, 한국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사업 수익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됨.

■ 우크라이나 사태와 저유가 기조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되면서 대규모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러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활발하게 개선되었으나,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이 외자유치를 천명하고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대북투자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중·러를 제외한 여타 국가의 대북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에 식량 및 원유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북·러 경제협력이 철도 외에 식량,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에너지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음.

※ 러시아의 2013년 대북 석유수출은 3,689만 달러(전년대비 59% 증가)로, 2차 핵실험 이전 수준에 육박<sup>12)</sup>

■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임.

- 남·북·러 3각 경협사업으로 북한 북동지역을 개성공단 형태의 경제특구로 개발하여 한국 자본과 기술, 러시아 에너지, 북한토지와 노동력 등을 활용한 경제협력 모색 가능
- 남·북·중 3각 경협사업으로 동북2성과 한반도 철도 연결(회령-청진-원산-강릉)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이 경우 북한은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에 더하여 동북2성과 한국을 위시한 동북아를 잇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한국도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육상 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II) 사무국을 통한 동북아 무역원활화, 남·북·중·러 간 범국경경제협력지구(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 개발, 동북아 식량안보를 위한 공동 농업개발 방안 마련,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는 선도개발지역 프로그램과 나진-하산 경협, 남·북·러 철도 구축을 종합한 동북아 경제개발 방안 모색 등이 필요<sup>13)</sup> KIEP

12) 「北, 中경제 의존 줄이려 러시아와 밀착?」, 『동아일보』(2014. 5. 14).

13)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추진할 선도개발지역은 관세 및 통관 혜택, 인프라 제공 등을 도모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로서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인터뷰 내용 참고, 『연합뉴스』(2014. 12. 4).